

農巖의 哀辭에 나타난 문장기법 연구

吳錫環*

<目次>

I. 서론	3. 借古證今 : 論證의 妙(1)
II. 문장기법	4. 以虛證實 : 論證의 妙(2)
1. 由情立理 : 情理의 妙(1)	5. 寄情于理 : 情理의 妙(2)
2. 畫皮畫骨 : 敘事의 妙	III. 결론

<국문 초록>

애사는 눈물을 짓지 않고 애도하는 글이며 어려서 일찍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짓는 글이니, 혹 재주가 있는데 쓰이지 못함을 애상히 여기고, 혹 덕이 있는데 장수하지 못함을 애통히 여긴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농암의 대표작으로 제시한 작품은 그의 제자와 재종형제에 관한 글인 만큼, 농암이 심혈을 기울였으리란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장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슬픔에 젖어들게 하고 있다.

먼저 감정과 논리를 연결하여 情으로부터 논리를 세워나가거나[由情立理] 논리에 정을 깃들이는[寄情于理] 방법을 사용하였고, 논증의 방법으로 고사를 빌려 지금을 증명하거나[借古證今] 허구를 가지고 사실을 증명하는[以虛證實]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정신적인 품격을 드러내기 위하여 겉모습을 그리는 동시에 내면의 모습까지 담아내는 기법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슬픔이 몰려오게끔 하고 있다.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 gosan-man@hanmail.net

산문의 일반적인 기능은 실용에 있다. 특히 애사는 죽은 사람의 영전에 고하는 글이다. 따라서 그 주안점은 당연히 슬픔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문장가의 아름답고 화려한 글 솜씨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에 슬픔이 결여되어 있거나 죽은 자와 산 자로 하여금 절실한 슬픔을 느끼게 할 수 없다면, 이는 죽은 글이다. 그렇다고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슬픔을 표현한다면 이는 글이 천박해질 뿐이다.

농암의 애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철저히 슬픔에 그 주안점을 두었고, 다양한 문장기법을 통하여 슬픔에 대한 노골적이거나 사실적인 표현이 없으면서도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흐느끼며 슬픔을 주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주제어】 감정, 논리, 슬픔, 논증, 생동감, 표현수법

I. 서론

散文文學의 하나인 哀辭를 직접 논문으로 다룬 경우는 매우 드물다. 1994년 김상홍이 발표한 「進士 朴南壽의 哀祭文學 研究」¹⁾가 처음인 듯하다. 김상홍은 여기에서 哀辭의 성격과 형식을 논하고, 작품으로 박남수의 「閔君啓運哀辭并序」 1편을 거론하고 ‘義’를 중심으로 고문정신에 의해서 지어진 우수한 작품이라 하였다.

1996년 안영길은 「金昌協의 文學研究」²⁾에서 哀祭文學을 거론하고, 농암의 작품 중에서 「黃生柱河哀辭」 1편을 논하였는데, 해석과 나열에 그치고 말았다.

農巖의 哀祭類 散文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拙稿, 「農巖의 哀祭類 散文文學 小考」³⁾에서 始作되었다. 작품의 직접 분석을 통하여 애제류

1) 김상홍, 「進士 朴南壽의 哀祭文學 研究」, 『漢文學論集』 12, 단국한문학회, 1994.

2) 안영길, 「金昌協의 文學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3) 吳錫環, 「農巖의 哀祭類 散文文學 小考」, 『漢文學論集』 15, 근역한문학회, 1997.

산문에 쓰인 문장기법을 중심으로 그 우수성과 독특함을 논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麗韓十家文鈔』에 選集된 「黃柱河哀辭」와 「亡弟再葺祭文」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農巖의 哀祭類 散文의 우수성과 독특함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이어진 「農巖의 哀祭類 散文文學 研究」⁴⁾에서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의 哀祭類 散文의 우수성과 독특함이 드러나는 상당수의 작품을 考察하였다.

그러나 농암 산문문학을 文類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하고, 농암 산문문학의 전체적인 연구의 일환⁵⁾으로 작업하다보니, 각 文體別 특성과 문체별 문장기법의 특징이 정밀하게 탐색되지 못하였다.

本稿에서는 農巖의 哀祭類 散文中, 『麗韓十家文鈔』와 『東文集成』에서 選한 作品중에서 哀辭만을 다루려하고 한다. 제문은 이미 拙稿, 「農巖 金昌協의 祭文에 나타난 문장기법 연구」⁶⁾에서 다루었기 때문이고, 또한 農巖이 지은 64개의 祭文과 6개의 哀辭가 모두 다루기에는 內容상으로도 尠大하거나, 形式이나 技法상으로도 비슷한 作品들을 모두 다루는 것이 無意味하므로, 그 代表的 作品을 뽑아 다루는 것이 適合하다고 判斷되었기 때문이다.

淸나라 姚鼐는 『古文辭類纂』에서 文類를 (1) 論辨類 (2) 序跋類 (3) 奏議類 (4) 序說類 (5) 贈序類 (6) 詔令類 (7) 傳狀類 (8) 碑誌類 (9) 雜記類 (10) 箴銘類 (11) 頌讚類 (12) 辭賦類 (13) 哀祭類로 分類하고 그 중 (13)의 哀祭類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哀祭類는 『詩經』에 頌이 있고, 風에는 「黃鳥」와 「二子乘舟」가 있으니, 모두 그 시초이다. 楚人の 辭가 지극히 工巧로왔고, 後世에는 오직 韓愈와 王安石이

4) 吳錫環, 「農巖의 哀祭類 散文文學 研究」, 『한국고문이론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5) 吳錫環, 「農巖 金昌協의 散文文學 研究」,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6) 吳錫環, 「農巖 金昌協의 祭文에 나타난 문장기법 연구」, 『漢文古典研究』 18, 한국한문고전학회, 2009.

있었을 뿐이다.⁷⁾

姚鼐는 哀祭 文學의 기원을 『詩經』 중 頌과 國風의 「黃鳥」와 「二子乘舟」로 보았다. 哀祭類의 作品으로는 楚辭가 가장 工巧로왔고, 後世에는 韓愈와 王安石이 있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辭는 詩經과 離騷의 소리를 겸하였으니, 간결하고 깊은 것이 특징이다.⁸⁾ 劉勰은 『文心雕龍』에서 哀辭는 눈물짓지 않고 哀悼하는 글이며, 일찍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짓는 글이라고 하였다.

제정된 諡法에 의하면 어려서 죽는 것을 ‘哀’라고 말한다. 哀는 依이니, 슬픔은 진실로 마음에 의한 까닭에 ‘哀’라고 말한다. 말로써 슬픔을 나타내어 대개 눈물을 짓지 않고 애도하는 것이므로 노인에게 있지 않고, 반드시 일찍 죽음을 諡한 것이다. (中略) 원래 哀辭의 大體는 情은 哀痛하고 傷心하는 데에 主를 두고, 辭는 사랑하고 아끼는 데에 다한다. 어려서 德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칭찬이 밝고 슬기로움에 그치고, 나약하여 責무를 이기지 못하므로 애도함이 용모에서 더해진다. 마음을 숨기고서 文을 맺으면 일이 만족스럽고, 文을 관찰하여 마음을 번거롭게 하면 文체가 화려해진다. 文체를 화려하게 하여 辭를 지으면 비록 美麗하나, 슬픔이 없으니, 반드시 情이 가서 슬픔을 모으고 文이 와서 슬픔을 이끌게 하여야 곧 貴하게 된다.⁹⁾

哀辭의 大體는 哀痛하고 傷心하는 데에 主를 두고, 辭는 사랑하고 아끼는 데에 다한다고 하였다. 어리고 약할 때에 죽은 사람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 밝고 슬기로움만을 칭찬하고, 책무보다는 용모를 표

7) 姚鼐, 『古文辭類纂』, 「序目」, “哀祭類者, 詩有頌, 風有黃鳥二子乘舟, 皆其原也. 楚人之辭至工, 後世惟退之介甫而已.”

8) 漢武帝, 『古文眞寶』, 「秋風辭」.

9) 劉勰, 『文心雕龍』, 「哀弔」, “賦憲之諡, 短折曰哀. 哀者依也, 悲實依心, 故曰哀也. 以辭遣哀, 蓋不淚之悼, 故不在黃髮, 必諡天昏……原夫哀辭大體, 情主于痛傷, 而辭窮乎愛惜. 幼未成德, 故譽止於察惠, 弱不勝務, 故悼加乎膚色. 隱心而結文則事愜, 觀文而屢心則體奢, 奢體爲辭, 則雖麗不哀, 必使情往會悲, 文來引泣, 乃其貴耳.”

현함에서 애도함이 더해진다고 하였다. 말로써 슬픔을 나타내어 눈물을 짓지 않고 애도하는 글이기 때문에 문체가 미려한 것 보다는 슬픔을 모으고 울음을 이끌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徐師曾의 『文體明辯』에서는 哀辭란 죽은 이를 슬퍼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哀辭란 것은 죽음을 슬퍼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文이라고도 稱하니, 무릇 哀의 말뜻은 依이다. 슬픔은 마음에 依하는 까닭에 ‘哀’라고 말한다. 辭로써 슬픔을 보내기 때문에 哀辭라 이른 것이다. 옛날 漢나라 班固가 처음으로 「梁氏哀辭」를 지었고, 後人들이 이로 인하여 대대로 撰著가 있게 되었으니, 혹 재주가 있는데도 그 쓰이지 못했음을 哀傷히 여기고, 혹 德이 있는데도 그 장수하지 못했음을 哀痛히 여긴다. 어려서 德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이 받은 것을 살피는 데에 그치고, 나약하여 책무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애도함이 膚色에서 더하여지니, 이것이 哀辭의 大略이다. 그 文은 모두 韻語를 사용하고 四言 騷體는 오직 뜻이 가는 곳이니, 誄體는 다르다.¹⁰⁾

哀辭는 죽은 이를 슬퍼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한 글이라 했다. 최초의 哀辭는 漢나라 班固가 지은 「梁氏哀辭」이고, 이로 인하여 後人들이 대대로 撰著가 있게 되었으니, 혹 재주가 있는데도 쓰이지 못하고 죽은 것을 哀傷히 여기고, 혹 德이 있는데도 장수하지 못함을 哀痛히 여긴 것이라 했다.

農巖의 哀辭는 모두 여섯 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麗韓十家文鈔』에서 選한 「黃生柱河哀辭」¹¹⁾와 『東文集成』에서 選한 「鄭君啓哀辭」¹²⁾ 두

10) 徐師曾, 『文體明辯』 卷60, 「哀辭」, “按哀辭者, 哀死之文也. 故或稱文, 夫哀之爲言, 依也. 悲依於心, 故曰哀. 以辭遣哀, 故謂之哀辭也. 昔漢班固, 初作梁氏哀辭, 後人因之, 代有撰著. 或以有才而傷其不用, 或以有德而痛其不壽. 幼未成德, 則譽止於察惠, 弱不勝務, 則悼加乎膚色, 此哀辭之大略也. 其文, 皆用韻語, 而四言騷體, 惟意所之, 則誄體異之.”

11) 金昌協, 『農巖集』 卷30, 「黃生柱河哀辭」.

12) 金昌協, 『農巖集』 卷30, 「鄭君啓哀辭」.

편에 나타난 文章의 技法을 내용과 체제의 분석을 통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사람이 지은 글 중에서 가장 心琴을 울리는 글은 죽은 사람의 靈前에 告하는 哀祭類의 글일 것이다. 哀祭類의 문장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이의 靈魂에게 글로써 追慕하고 慰勞할 수 있는 文類이기에 내용이 정성스럽고 슬프지 않은 것이 없다. 죽은 자의 靈魂을 慰勞하고 이별의 아픔과 追慕의 情을 形象化한 글인 만큼 죽은 이가 사랑하는 親族이나 벗이라면 그 내용이 더욱 哀切할 수밖에 없다.¹³⁾

본고에서 底本으로 삼은 農巖散文은 韓國歷代文集叢書의 일부로 경인문화사에서 影印하여 간행된 『農巖先生文集』과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영인하여 간행한 『韓國文集叢刊』에 수록되어있는 『農巖集』이다.

II. 문장기법

1. 由情立理 : 情理의 妙(1)

마음껏 發散하고 시원스레 힘찬 것은 農巖 산문의 본래 모습이나, 어떤 때에는 白描手法을 사용하여, 뚜렷한 특징이 있는 세밀한 부분을 힘주어 드러내 보인다. 비판을 가하지는 않지만 思想感情의 경향을 스스로 드러나게 했으니, 이것은 굉장히 질박하고 아주 깊이 있는 표현 수법으로 사람들의 美感的 욕구를 최대로 만족시킨다. 이는 寫作技巧가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라야 能熟하게 그와 같이 응용할 수 있다.

農巖의 哀辭는 情을 특히 중시하였는데, 여기서 情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由情立理하여 더욱 깊은 감동을 준다. 먼저 農巖은 「黃生柱河哀辭」에서 黃柱河는 그의 제자인데, 그에 대한 정의 두터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3) 김상홍, 앞의 논문, p.733.

황군 숙보의 죽음에 내가 곡을 하는 때가 지나치도록 슬퍼하니, 同志의 선비들로 나를 좇아 노니는 자들이 모두 와서 나를 위로하면, 나는 문득 눈물을 흘리며 응대하였다. 숙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혹 내가 지나치게 슬퍼함을 의심하나, 나는 실상 지나친 것이 아니다.

黃君叔輔之死 余哭之過時而悲 同志之士從余游者 咸來弔余 余輒垂涕而對之 不知叔輔者 或疑余之過悲 而余實非過也

黃柱河(字, 叔甫)의 죽음에 農巖이 지나치게 몹쓸 하고 슬퍼하는 상황이 同志의 선비로 자기를 좇아 노닌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게 와서 弔問을 하는 광경에 이르러 극치를 이룬다. 그럼에도 農巖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 하여 哀辭의 내용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農巖은 叔甫에 대한 자기의 지극한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절대 이치에 어긋난 행동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이어서 農巖은 叔甫에 대한 이별의 슬픔을 酣暢하고 淋漓한 筆致로 잘 그려내고 있다.

하늘이여 귀신이여, 그 닷할 데를 알지 못하겠다. 아! 슬픔이여, 자네는 어찌 나를 속였는가? 스스로 내가 보지 못함으로부터, 지금 몇 때인가? 아울러 갈대와 이슬이 처량함이여, 가을 강은 아득하구나. 이른바 저 사람이여, 나는 아직도 보이는구나. 봉창을 걷고 키를 두들김이여, 가서 장차 좇으려한다. 여기를 어찌하고 여기를 등짐이여, 그 발자취를 알지 못하도다. 배는 어찌 관을 띄우고, 바람은 어찌 깃발을 날리는가? 무덤은 어찌 감감하고 깊으며, 봉분은 어찌 높고 높은가? 白楊은 무슨 나무이며 瀟露는 무슨 곡조인가? 옳은가 의문인가, 원한이 맺히고 사무치도다. 아! 그만입이여, 萬古에 茫茫하도다.

天乎鬼乎兮 莫知其尤 嗚呼哀哉兮 子豈我欺 自我不見兮 于今幾時 蒹葭露淒兮 秋水渺瀰 所謂伊人兮 吾尙見之 牽篷鼓柁兮 逝將往從 何斯違斯兮 不得其蹤 舟何浮樁兮 風何吹旌 坎何黝深兮 封何峭崢 白楊何樹兮 薤露何曲 其然其疑兮 結懣冤酷 嗚呼已矣兮 萬古茫茫

농암의 숙보에 대한 슬픔이 4언시를 통하여 애잔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생을 갈대와 이슬에 비유하고, 이별을 인생은 부추잎의 이슬 같다고 한 漢代의 輓歌인 「薤露」를 끌어다가 비유하니, 그 슬픔의 아련함이 萬古에 茫茫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農巖은 「鄭君啓哀辭」에서 자신과 재종형제인 鄭君啓가 知音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

鄭君 君啓는 이름이 世沃이고 烏川 사람이다. 그 아버지는 牧使 諱 榮漢이니, 나의 先君의 고모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君이 나에게서는 再從 兄弟가 된다. 君은 평생 험하고 높으며 서로 어긋나서 세상에 맞지 않았고, 일찍이 다시 법에 저촉되어 옥사에 연루되었으나 모두 그의 죄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살피지 아니하고 의심하여 헐뜯는 것이 십 중 항상 일곱 여덟이었다. 내가 홀로 알고서 애석히 여기고, 누차 사람들에게 말을 했으나 사람들이 또한 믿지 않았다. 鄭君 君啓 名世沃 烏川人也 其考牧使諱榮漢 吾先君之姑之子也 故君於余 爲再從兄弟 君平生嶽崎齟齬 不偶於世 嘗再罹文罔繫獄 皆非其罪也 世之人 類不察 疑而訾者 十常七八 余獨知而惜之 屢以語於人 而人亦未之信也

당시에 鄭君啓가 사람들로 부터 좋지 못한 평을 듣고 있었으나, 農巖은 그것이 모두 鄭君啓가 세상에 맞지 않음 때문이며, 세상 사람들이 鄭君啓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헐뜯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鄭君啓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뿐이며, 여러 차례 鄭君啓의 진실을 알리려 했음을 들어 鄭君啓에 대한 자신의 정을 나타내고 있다. 農巖은 당시에 鄭君啓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더욱 안타까워하였으니, 다시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 끝내 궁함을 슬퍼하니, 세도가 더욱 좁음을 개탄하노라. 어찌 의를 행함이 혹 어그러졌겠는가? 무리들이 이에 가리켜 미치고 괴이하다 여기네. 간헐음이 그 죄가 아닌데도, 오히려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치지 않도다. 湖海를 방랑함이며, 영화와 이름을 밀어서 남에게 주는구나. 지계미와 누룩에 의탁하여서 고향으로 삼음이며, 마침내 한결같이 취해서 몸을 마치고도다.”¹⁴⁾라 하였다.

14) 金昌協, 『農巖集』 卷30, 「黃生柱河哀辭」, “吾悲若人之終窮兮, 慨世道之愈隘.

2. 畫皮畫骨 : 敘事의 妙

農巖의 문장은 변화가 풍부하면서도 또한 매우 자연스럽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어지는 것은 문장은 변해도 情理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문장의 변함’이란 문장의 기세가 그침 없이 오르락내리락 전환되는 것이 마치 봉새가 하늘에 달고 곤어가 바다에서 노니는 것 같아 변화의 폭이 크면서도 웅장하며 강력한 힘이 있다는 말이며, ‘情理가 변하지 않음’이란 시종일관 마음에 위배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희로애락의 감정을 자연스레 드러내어 수식을 더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연히 情理를 속이는 병폐가 없게 되는데, 이는 문장을 써내려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큰 前提를 실현한 것이다. 사실 文勢의 변화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데에서 나오는 것이며, 장점을 드러내고 단점을 피하는 필요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농암의 이러한 문장기법은 고립되거나 정지된 묘사의 필치가 거의 없이 인물의 형상을 그려내는 데, 종종 그 정신적인 품격을 드러내기 위해 걸모습을 그리는 동시에 내면의 모습까지 담아내어, 그 필치가 세련되고 의미가 심장하여 淡墨으로 寫意하는 것 같음이 있다.

農巖은 「黃生柱河哀辭」에서 黃柱河를 칭송함이 두터워지고 고조되면서 은근히 자신이 바라던 인물임을 암시하였다.

나는 늦게야 도를 구함으로 생각에 당세의 자질이 아름답고 뜻이 있는 자들을 얻어서 서로 더불어 切磋琢磨하고 講明하여 그 학문을 이루고자 했으나, 깊은 산속에 궁벽하게 처하여 사람과 더불어 서로 만남이 드물어서 숙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癸酉년에 들어서 그 아버지를 조문할 때 비로소 숙보를 보게 되었는데, 얼굴색이 온순하고 용모가 공손하며, 아래를 보고 말을 천천히 하며, 걸음걸이와 머뭇거림과 응답함이 모두 법도에 맞았다. 내가 진실로 마음속에

豈行義之或虧兮? 衆乃指以爲狂怪, 縲紲之非其罪兮, 猶不殄夫猜猜. 汨遷逝於湖海兮, 擠榮名以與人. 託糟麴以爲鄉兮, 遂壹醉以終身.”

기억했는데, 뒤에 다시 보고 세 번 봄에 이르러 그 뜻이 세속 밖으로 높이 솟았고, 날로 독서하고 수신하여 일로 삼는 것을 보고 나는 더욱 기뻐서, 평일 들은 바의 古人들이 학문하는 차례와 格物窮理의 說을 告하기를 다하였다. 대개 나는 이로부터 비로소 숙보와 더불어 같이 공부할 뜻이 있었고, 숙보는 그 나를 보지 못할 때부터 이미 나에게 뜻이 있었다. 그러나 숙보는 이 때에 마침 後母의 상복을 입고 있던 때라 바로 나에게 나아오지 못하고, 그 다음 해 비로소 책을 써서 漢湖로 나를 찾아왔다. 육칠 일을 계속 머물면서 강론함이 매우 들어맞아 이에 나와 숙보는 서로 기약함이 더욱 깊고 멀어졌다.

以余之晚而求道也 思得當世之質美有志者 相與切磋講明 以就其學 而僻處窮山 罕與人相見 不知有叔輔也 歲癸酉 過弔其大人 始見叔輔焉 色溫而貌恭 視下而言 徐步趣旋辟唯諾 咸中矩度 余固心識之 及後再見三見 見其志意高出世俗外 而日讀書筋躬爲事 余益喜焉 悉以平日所聞古人爲學之序 格物窮理之說 告焉 盖余自是 始與叔輔 有共學之志 而叔輔則自其未見余 而已有意於余矣 然叔輔 於是時 方持所後母服 不果卽就余 其明年 始笈書訪余於漢上 留連六七日 講論甚適 於是 余與叔輔相期 益深遠矣

農巖은 자신의 소망이 資質이 아름답고 뜻을 가진 자를 얻어 서로 더불어 切磋琢磨하고 講明하여 그 학문을 이루려는 데 있음을 말하여, 바로 그가 소망하던 인물이 叔輔임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 또한 평일 들은 바 古人의 학문하는 차례와 格物窮理의 설을 다하여 叔甫에게 告하고, 이때부터 비로소 叔甫와 더불어 같이 학문할 뜻을 갖게 되었다 하였으니, 이는 다시 자신이 소망하던 인물이 叔輔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내용이 다시 뒤에서 연결되어 문장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叔甫의 인물을 형상함에는 낮빛이 온순하고 용모는 공손하며 말이 느리다 하여 그 바탕이 순수하고 신실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였고, 나아가고 머물며 응답함이 모두 법도에 맞았다고 하여 修身을 일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사람의 겉모습만을 형상하였으나, 그 의미가 심장하여 내면의 모습까지 烘托해내고 있는 것이다.

자기와 叔甫가 서로 기약함이 더욱 심원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서

로 더불어 切磋琢磨하고 講明하여 그 학문을 이루고자 하는 인물이 叔甫임을 다시 한 번 말하여서 문장의 맥이 꾸준히 연결되게 한 것이다.

한편, 農巖은 「黃生柱河哀辭」에서 黃柱河를 禮讚하면서 자신과 黃柱河와의 조화를 표현하려 하였다.

峨嵯山 南麓이여,
漢水의 한 굽이로다.
누각이 그늘짐이여,
매화 나무 향기가 가득하구나.
深衣와 幅巾이여,
홀로 서서 재빠르구나.
흐린 세상을 내려다 봄이여,
누가 더불어 함께 움직일까?
작은 배에 책을 실음이여,
나를 漢陰에서 좇도다.
너는 읊조리고 나는 영탄함이여,
曾點의 비파이고 顏回의 거문고로다.
서로 천 년을 기약함이여,
오직 도의 자질이로다.

峨嵯南麓兮 漢水一曲 亭臺蔭映兮 梅樹芬郁 深衣幅巾兮 獨立儵然 下視濁世兮
誰與周旋 扁舟載書兮 從我漢陰 爾吟我歎兮 點瑟回琴 相期千載兮 唯道之資

師弟의 道에 대하여 曾點의 瑟과 顏回의 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點瑟은 曾子가 瑟을 탔다는 말로 曾子가 極盡한 孝를 행하여 조금도 부모를 원망함이 없었음을 뜻한 것이고, 回琴은 顏回가 琴을 탔다는 말로 陋巷에 處하여서도 道를 즐거워하였음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黃柱河가 읊조리면 農巖 자신이 영탄하며, 서로 천 년을 기약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정군계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깜박 깜박 밤에 남쪽을 바라봄이여, 공연히 斗牛의 光氣에 髣髴하도다. 슬프도다. 옛날에 살던 곳을 다시 찾을 수 없음이여, 내 거문고를 연주해도 또 누가 들겠는가?”¹⁵⁾라 하였다.

3. 借古證今 : 論證의 妙(1)

원대한 생각은 넓은 바탕에서 나오고 높은 차원은 일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문장가들이 이러한 능사를 갖춘다면 곧 궁함을 만나도 통하게 되어 해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곤궁함을 설정하여 거기에 통하는 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農巖은 「鄭君啓哀辭」에서 鄭君啓에 대한 사람들의 평이 잘못이라는 것을 孔子께서 公治長을 논한 것과 朱子께서 陳亮을 사귀는 것에 견주어 증명하고 있다.

君이 젊어서 辭賦를 잘 지어 司馬試(進士)에 응시하여 높이 뽑혔었고, 중년에는 가서 湖西의 부여에 살고, 다시 진취함을 급하게 여기지 않았다. 늦게야 벼슬 한 자리를 얻었으나, 마침내는 언관들이 이전의 일을 가지고 가로막았다. 안타깝도다, 성인이 公治長을 논한 것은 물론이고, 또 陳亮이 布衣로써 감옥에 세 번을 들어갔으나, 朱夫子는 더불어 사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마침내는 위해서 그 묘에 題하여 ‘龍川 선생’이라고 말하였으니, 성현이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함에 그 공정함과 밝음이 이와 같았으니, 지금 君을論하는 것이 어찌 심한 것이겠으며, 君에게 또 어찌 부끄러운 것이겠는가? 君의 성품이 기이함을 좋아하여 그 언론과 행사가 대부분 세속과 같지 않음으로 높음을 삼았으니, 이것이 사람들에게 괴이함을 取한 까닭이다. 그러나 마음 속 실상은 지조가 굳어 변치 않고 효도하며 우애하고, 사람과 더불어 사귀는 믿음과 의리가 있으며, 그 마음을 허락한 바에는 한 번 정하면 바꾸지 아니하니, 이와 같은 것은 세상이 돌아 보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君少善爲辭賦 占司馬高選 中歲去家湖西之扶餘 不復以進取爲急 晚得一官 竟爲言者 以前事棍之 嗟乎 聖人之論公治長 尙矣 且以陳亮之以布衣三入大理 而朱夫子不耻與之交 卒爲題其墓 曰龍川先生 聖賢之於好惡人 其公且明如此 今之論君者 抑何甚哉 而於君又何愧焉 君性好奇 其言論行事 類以不同俗爲高 此其所以取

15) 金昌協, 『農巖集』 卷30, 「鄭君啓哀辭」, “耿中夜以南望兮, 空髣髴乎斗牛之光氣. 嗟哉宿契之不復尋兮, 鼓余琴又誰聽.”

怪於人者 然中實耿介孝友 與人交有信義 於其所心許 一定不易 若是者 世顧不能知也

農巖은 사람들이 鄭君啓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헐뜯는 것은 밝고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여기고, 孔子께서 公治長을 논한 것과 陳亮이 布衣로써 세 번을 감옥에 들어갔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불어 사귀어 龍川先生이라고까지 칭한 朱子の 행실을 들어 聖賢과 보통 사람들의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는 공정성의 차이를 견주어, 君啓가 지조가 굳어 변치 않고 효도하며 우애하고 사람과 더불어 사귀에 의리가 있고 그 마음을 허락한 바에 한 번 정하면 바꾸지 않는 실상이 있으나 군의 성품이 기이함을 좋아하여 그 언론과 행사가 대부분 세속과 같지 않음을 높게 여기는 까닭에 사람들에게 나쁜 평을 얻게 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농암은 “진실로 흐르는 세속의 길만 봄이여, 누가 수양됨을 믿어서 알겠는가? 옛날부터 대개 만나지 못함이 있음이여, 오직 문장으로 밝게 드리워서 뛰어난 문장을 꾸미도다.”라 한 것이다.

한편, 農巖은 「黃生柱河哀辭」에서 黃柱河의 인간됨을 詩와 禮로 修養하고, 孝와 道에 맞음으로써 말하고 있다.

아름다운 한 선비 있음이여,
 헌걸차고 淸揚하다.
 마음은 自修한 듯 함이여,
 詩와 禮를 잡았구나.
 白華와 南陔여,
 潔濟하고 孝養하도다.
 肆夏와 采齊여,
 進趨하고 揖讓하도다.
 땅을 가려서 밟음이여,
 先王의 服을 입는구나.
 규칙을 중히 하고 법도가 겹침이여,
 蘭을 襲하고 芳을 잡았도다.

有美一士兮 頎而清揚 穆如自修兮 詩禮是將 白華南陔兮 潔齊孝養 肆夏采齊兮
進趨揖讓 擇地以蹈兮 被服先王 重規疊矩兮 襲蘭握芳

그의 인간됨의 뛰어난을 詩와 禮를 잡은 것으로 드러내었으며, 潔齋하고 孝養함을 『詩經』의 小雅 鹿鳴之什의 「白華」와 「南陔」篇을 가지고 비유하였고, 進趨하고 揖讓함을 『禮記』 玉藻에 나오는 樂章인 「肆夏」와 「采齊」에 비유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음을 적절히 서술하고 있다.

4. 以虛證實 : 論證의 妙(2)

虛構가 어떻게 論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는가? 이러한 필법은 단지 긴박한 상황에서 구두로 답변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의론문은 감히 이러한 작법을 쓸 수가 없다. 그러나 農巖은 이러한 작법을 썼고 아울러 이로 말미암아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 또한 그의 얽매이지 않은 성격과 재능을 표현한 것이다.

農巖은 「黃生柱河哀辭」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아울러 이로 말미암아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해 겨울에 내가 동지 팔구 인과 더불어 石室書院에서 文會를 했는데 숙보가 갑자기 하루는 옛 의관을 입고 폐백을 잡고 글을 갖추어 나아와 계단 아래에 서서 제자의 예로 뵈기를 청하였다. 내가 놀라서 감당하지 못하였으나, 세 번을 반복함에 비로소 허락하니, 숙보가 인해서 사오 일을 머물며 아침저녁으로 뵈고 예를 갖추기를 더욱 삼가니, 사람들이 처음에 숙보가 나를 좇아 講學하는 것을 보고, 숙보가 일찍이 스승의 예로써 나를 대하지 않는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이에 이르러 비로소 그가 스승의 예로 나를 대함을 보았으나, 또 숙보가 나에게 뜻을 둔 지가 진실로 오래임을 알지는 못하였다. 대개 숙보가 일찍이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옛날의 스승을 섬기는 자는 한결같이 君父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아감이 또한 가볍지 않았는데, 지금의 스승을 말하는 자는 어찌 그리 쉽게 여기는지, 다만 길에서 들어도 어짐으로 여기면 가서 좃고, 한번 문하에 이르는 때에는 문득 불러서 스승을 삼으나, 그 실상을 살펴보면 멸시

하는 듯합니다. 옛날의 이른 바 스승이란 것이 어찌 진실로 이와 같겠습니까? 곧 이른 바 백성은 세 가지에서 생하고, 섬기기를 한결같이 한다 했으니, 이른 바 좌우에서 나아가 봉양하고 부지런히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이른 다 한 것은 무엇을 이릅니까?”라 하였다. 내가 마음으로 그가 의도해서 말함이 있음을 알았으나, 순순히 대답하며 그 설을 살필 수가 없었다. 다른 날에 숙보가 매 번 이로써 나에게 질문을 하여, 나는 마침내 한유의 「師說」로 고평하여 말하기를 “자네의 말은 곧 도를 이른 것일 뿐이다. 무릇 한유의 말에는 진실로 또한 巫醫와 百工과 童子의 스승이 있어서, 이로부터 미루어 보면 무릇 經術을 전하고 文詞를 일삼음에도 마땅히 모두 스승이 있으니, 이와 같음이 비록 도를 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어찌 스승이라 이를 수 없겠는가? 비록 스승이라 불러도, 그 섬김에는 어찌 도를 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이른바 스승이란 것은 또한 이와 같을 뿐이다.”라 하였다. 숙보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말씀 인즉 옳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도를 위하여 스승을 구함이 아니면 스승을 구함에 어찌 반드시 하겠습니까?”라 했다. 대개 그의 持論이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그 나를 대함이 또한 鄭重하고 구차한 바가 없었다.

是年冬 余與同志八九人 爲文會于石室書院 叔輔忽一日 衣古冠服 執幣具書 進立階下 請以弟子禮見 余瞿然不敢當 辭三反始許之 叔輔因留四五日 朝暮以見 執禮益虔 人始見叔輔從余講學 而不知叔輔未嘗以師禮處我也 及是 始見其以師禮處我 而又未知叔輔有意於我固久也 蓋叔輔嘗謂余曰 古之事師者 一視乎君父 故其就之也亦不輕 今之言師者 何其易也 徒聽於道塗 以爲賢而往從之 一及門之頃 輒呼爲師 而考其實 則蔑如也 古之所謂師者 豈固如是乎 則所謂民生於三 事之如一 則所謂左右就養 服勤至死者 何謂也 余心知其有爲而言也 唯唯而不能究其說 他日叔輔 每以是質余 余遂告之以韓子之說曰 子之言者 乃道之謂耳 夫韓子之言 固亦有巫醫百工童子之師焉 自是而推之 凡經傳術業文詞 宜皆有師 若是者 雖不得與傳道者比 而豈不可謂之師乎 雖謂之師 而其事之也 則豈得與傳道者比乎 今之所謂師者 亦若是已矣 叔輔曰 子之言則然矣 然士不爲道而求師也 則何必於求師 蓋其持論如此 故其於處我也 亦鄭重而無所苟焉

農巖은 叔甫와 師弟의 因緣을 맺게 된 과정을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描寫하고 있다. 뒤에 農巖은 叔甫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뜻하고 있었음을 말하여, 叔甫가 갑작스럽게 弟子의 禮를 갖추어 뵈기를 청한 태도에서 叔甫의 인물됨을 다시 한 번 말하고자 하였고, 叔甫와

의 情을 더욱 強調하고자 한 것이다.

農巖은 叔甫가 스승에 대해 물었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當時의 스승에 대한 道理가 무너져 버린 것을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農巖은 叔甫의 거듭되는 질문에 할 수 없이 韓愈의 「師說」을 끌어다가, 韓退之의 말에 진실로 巫醫·百工·童子에게도 스승이란 것이 있으니, 마땅히 經傳·術業·文詞에도 스승이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자가 비록 도를 전해 주는 자와 더불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역시 스승임에는 틀림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어 叔甫가 선비가 도를 위해서 스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스승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한 대목을 서술하여, 당시에 도를 전해 주는 스승으로서의 의미와 스승을 섬기는 도리가 무너졌음을 逆說의으로 表現하여 當時의 師道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독자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鄭君啓哀辭」에서 鄭君啓는 세상에서 버림받음으로 인하여 더욱 세상과 등을 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기술하여, 農巖은 오히려 그의 세속에 얽매이지 않은 행동과 세상이 그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 하였다.

君은 이미 때와 더불어 말살되고 더욱 술을 좋아하여 스스로 멋대로 하며, 때때로 취함을 타고 남을 욕하고, 꺼리는 것을 피하지 않으니, 이로써 더욱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바가 되었다. 일찍이 옆 마을에 갔는데, 고을 수령이 마침 군과 옛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다. 머물러 몇 일을 마시게 되었는데, 하루 저녁은 술에 취하여 원님 자리에 누워 갑자기 병이 나서 일어나지를 못하니, 실로 戊寅年 五月 某日이었다.

君既與時抹撥 益喜酒自放 往往乘醉罵人 不避忌諱 以此益爲人所不喜 嘗游傍邑 邑令適君舊相識 爲留飲累日 一夕被酒 臥邸中 暴疾不起 實戊寅五月某日也

鄭君啓가 술을 좋아하고 이로 인하여 멋대로 행동하며 남을 욕하고

꺼리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니, 더욱 사람들이 그를 이해할 수 없음이 되었고, 마침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됨을 기술하였으니, 이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鄭君啓에 대한 단점을 들춘 것처럼 볼 수 있으나, 農巖은 이를 서술하여 오히려 그가 세상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 했고, 그가 세속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가 속세에 얽매이지 않았음은 “玉佩와 文繡여, 둘 다 생각하는 바가 없도다. 雲月로 소요함이며, 호수와 산을 가리키고 돌아보도다. 거슬러서 다시 감이며, 멀고 어렵지 않도다. 이것이 매우 즐겁다고 이름이며, 어찌 좀 더 머물지 아니하는가?”¹⁶⁾라 한 데서 더욱 확연히 표현되고 있다.

5. 寄情于理 : 情理의 妙(2)

보통 문장을 쓰려면 냉정한 태도와 감정의 동요가 없어야 진실한 문장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문장을 쓰고자 하는 욕망은 필연적으로 감정을 수반하게 되는데, 감정을 잘 융화시키지 못하면 써내려간 문장 전편이 냉랭해져서 곧 싫증이 난다. 농암의 문장은 이 情과 理가 잘 견비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감정이 고조되어 사람을 감동시킴에 이치보다는 차라리 감정이 勝하다고 말할 정도이다.

農巖은 「黃生柱河哀辭」에서 둘 사이의 애틋한 情으로 슬픔을 폭발시키고 있다.

숙보의 뜻을 관찰하면 대개 장차 나에게 자기를 맡겨 얻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죽거나 사는 것을 둘로 하는 것이 없었으니, 비록 나 또한 장차 그 죽음으로 숙보에게 몹을 끼치려 했으나, 이제 숙보가 죽으니, 내가 어찌 슬픔이 없을 수 있겠는가? 또한 숙보의 뛰어난 이치에 마땅히 죽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죽음은

16) 金昌協, 『農巖集』 卷30, 「黃生柱河哀辭」, “玉佩文繡兮, 兩匪所思. 徜徉雲月兮, 指顧湖山. 溯洄還往兮, 不遐而艱. 謂此甚樂兮, 何不少留.”

아마 또한 나의 궁박한 명이累了 끼친 것일 뿐이다. 무릇 나는 처음에 장차 그 죽음으로 숙보에게累了 끼치려 했는데, 이제 도리어 살아서 숙보에게累了 되어 그를 일찍 죽도록 했으니, 어찌 거듭 슬퍼할 만하지 않겠는가? 숙보의 이름은 柱河이고 昌原 사람이다. 사람됨이 키가 크고 풍채가 있었으며, 무리 가운데서 우뚝함이 群鷄一鶴과 같았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를 섬김에 그 힘을 다하고, 사람을 만남에 지극히 공손하고 삼가 비록 卑賤하여도 또한 禮로써 낮춤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그 하는 바가 小學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대개 적었다. 내가 마침 장차 「大學」에 나아가게 하려 했는데, 그 이름을 봄에는 이르지 못했다. 아! 그 더욱 애석할 뿐이다.

觀叔輔之志 蓋將委已於余 顛沛死生 無所貳 而雖余亦將以其死累叔輔 而今叔輔死矣 余安得無悲也 抑叔輔之賢 於理不當死而今死者 殆亦余窮命之累之耳 夫余始將以其死累叔輔也 而今反生而累叔輔 使其蚤死也 則豈不重可悲也 叔輔名柱河 昌原人 爲人頎秀有風標 在衆中特然如鷄群鶴 性至孝 事父母竭其力 遇人極恭謹 雖卑賤 亦禮下之不倦 其所謂不合於小學之教者蓋寡 余方進之於大學 而不及見其成也 嗚呼 其尤可惜也已

農巖은 叔甫와 자신이 서로 죽음으로서 의지하려 하였고 몸을 맡기려 하였음을 표현하여 둘 사이의 애틋한 정을 슬픔으로 폭발시키고 있다. 또한 叔甫가 죽은 것이 자신의 不運으로累了 된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이 얼마나 지극한 슬픔인가?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슬픔을 주체할 수 없게 한다. 용모를 설명함에 다만 키가 크고 풍채가 좋았음만을 말한 것은 아까운 인재였음을 말하고자 한 때문이었고, 성품을 설명함에 다만 孝와 禮만을 거론한 것은 물론 어린 나이에 죽어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이기도 했겠지만 그의 爲人이 뛰어났음을 말하고자 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말미암아 더욱 슬픔을 자아내게 하고 있으니, 이는 讀者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슬픔 속에 빠져들게 하고 哀惜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黃生柱河哀辭」에서 農巖은 黃柱河와의 師弟의 道를 말하여 더욱 黃柱河에 대한 자신의 두터운 정을 표현하고 있다.

비록 그가 나의 모자라고 비어서 취할 것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외람되이 서로 推重함이 사람을 잃었음을 면했지만, 그러나 그 師友를 중히 여기고 古禮를 좋아하여 세속에 휩쓸리지 않음은 또한 어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미칠 바이겠는가? 나는 이 때문에 그 하는 것을 어질게 여기고, 자신의 不肖함을 잊어버리게 되어, 얼굴을 가리고 스승으로 칭하였으니, 대개 또한 스스로 길을 아는 말에 의탁한 것이고, 또 禮를 아끼는 羊에 의존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言行과 持守에 숙보에게 부끄러움 있음이 많으니, 어찌 감히 숙보의 스승이 되겠는가? 그러나 내가 숙보에게 고하여 말한 것은 또한 다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숙보가 처음에 혹 옳다고 여기지 않았을 것이나, 물러나 그 사사로움을 살펴면 일찍이 믿고 받아들여 실천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程子가 이른 바 ‘감히 자신을 믿지 않고 그 스승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숙보에게 진실로 있었다.

雖其不知余庸虛無取 而猥相推重 爲免於失人 然其重師友好古禮 不靡於俗 亦豈今世人所及 余是以賢其爲而忘身之不肖也 抗顏而稱師焉 盖亦自託於識道之馬 而且以存愛禮之羊耳 不然余之言行持守 有愧於叔輔者多矣 豈敢爲叔輔師哉 然余於叔輔告語 亦無不盡 叔輔始或不以爲然 而退而省其私 未嘗不信修服行 程子所謂不敢信已而信其師者 叔輔實有焉

먼저 農巖은 스스로를 낮추어 平凡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 하고, 叔甫는 師友를 중히 여기고 古禮를 좋아하여 지금의 사람들이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叔甫가 자기를 스승의 예로 대하는 행동을 어질게만 여기고 자신의 不肖함을 잊어버리고 스승으로 칭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을 낮추고 제자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사제간의 정이 더욱 절실해졌으니, 『論語』에서 말한 자기가 서고자하면 다른 사람을 서게 하며, 자기가 達하고자하면 다른 사람을 達하게 한다는 것이다.¹⁷⁾ 또한 앞의 文章에서 다하지 못한 師道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은연 중에 改進한 것이다. 말로는 스승으로 칭함이 외람되다고 하였지만, 자신이 스승으로 칭한 것은 孔子께서 禮를 아끼는 羊을 두고자 한 것과 같다고 하여¹⁸⁾ 師弟의 禮를 강조하였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師道에 대

17) 『論語』 卷6, 「雍也」,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18) 『論語』 卷3, 「八佾」, “子貢欲去告朔之籩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

한 가르침을 주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뒷부분에서 叔甫가 비록 자신의 앞에서는 불만이 있는 듯도 하였으나 물러나 사사로울 때에는 진실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행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한편, 「鄭君啓哀辭」에서 農巖은 鄭君啓가 기이함을 좋아하는 성품과 學風의 由來를 서술하고, 이를 이해하는 자신과 鄭君啓가 자신을 극찬한 사실을 기술하여 자신과 鄭君啓 사이의 정을 드러내려 하였으며, 鄭君啓의 학문과 안목이 뛰어났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이가 겨우 오십삼 세였으니, 君이 文辭에 기이함을 좋아함이 더욱 심하였고, 더욱 揚雄과 班固와 柳宗元의 저서를 즐겨 읽어서, 模擬하여 鑿畫하고 功力이 刻深하나 비록 잠깐의 조각글이라도 또한 평범한 글이 없었고, 홀로 棘澁한 말을 버리기를 다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고 樊宗師와 孫可之의 유포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 筆力이 억세고 사나우며, 빗장이 엄밀하고 뜻이 또 지극히 精明하니, 나로부터 논하면 近世에 문장을 잘한다고 불리워지는 자들이 거의 미칠 수 없을 것이다. 君이 도리어 외람되어 내 글을 칭찬하여 지난날의 一二人大家들에게 부끄러울 바가 없다고 비교함에 이르니, 내가 비록 감당하지 못함으로 사양했으나, 마음에 마침내 잊지 못한다.

年僅五十三 君於文辭 好奇尤甚 尤喜讀揚雄班固柳宗元書 模擬鑿畫 功力刻深 雖造次赫蹠書 亦無凡筆 獨不能盡去棘澁語 故人見以爲樊宗師孫可之者流 然其筆力勁悍 關槩嚴密 而旨意又極精明 自余論之 近世號能文者 殆莫能及 而君顧猥賞余文 至比往時一二人大家無所愧 余雖讓不敢當 而於心終不忘

문장의 淵源이 揚雄과 班固와 柳宗元임을 말하여 정군계가 뛰어난 문장가임을 표현하였고, 기이함을 좋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難澁한 글을 즐겨 썼던 樊宗師와 孫可之의 즐기라는 평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農巖은 그의 필력이 억세고 사나우며, 빗장이 엄밀하고 뜻이 지극히 정명하여 근세 최고의 문장이라고 평하였다. 이는 바로 이어서 鄭君啓가 자신의 글을 평하여 지난날 대가들에게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였음을 말하여, 鄭君啓와 자신 사이의 정이 돈독하였음을 은연중에 드러내었다.

Ⅲ. 결론

사람이 지은 문장 가운데에서 가장 心琴을 울리는 글은 죽은 사람의 靈前에 告하는 哀祭類의 글일 것이다. 애제류의 문장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이의 靈魂에게 글로써 추모하고 위로할 수 있는 文類이기에 내용이 슬프고 처절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哀辭는 눈물을 짓지 않고 哀悼하는 글이며 어려서 일찍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짓는 글이니, 혹 재주가 있는데 쓰이지 못함을 哀傷히 여기고, 혹 德이 있는데 장수하지 못함을 애통히 여긴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농암의 대표작으로 제시한 작품은 그의 제자와 재종형제에 관한 글인 만큼, 농암이 심혈을 기울였으리란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장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슬픔에 젖어들게 하고 있다.

먼저 감정과 논리를 연결하여 情으로부터 논리를 세워나가거나[由情立理] 논리에 情을 갖들이는[寄情于理] 기법을 사용하였고, 논증의 방법으로 고사를 빌려 지금을 증명하거나[借古證今] 허구를 가지고 사실을 증명하는[以虛證實]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정신적인 품격을 드러내기 위하여 겉모습을 그리는 동시에 내면의 모습까지 담아내는 기법[畫皮畫骨]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슬픔이 몰려오게끔 하고 있다.

哀辭는 어려서 덕을 이루지 못했으니, 칭찬이 밝고 슬기로운 데에 그치고, 나약하여 책무를 이기지 못하니, 애도함이 용모에서 더해진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散文의 일반적인 기능은 實用에 있다. 특히 哀辭는 죽은 사람의 영전에 고하는 글이다. 따라서 그 주안점은 당연히 슬픔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문장가의 아름답고 화려한 글 솜씨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에 슬픔이 결여돼 있거나 죽은 자와 산 자로 하여금 절실한 슬픔을 느

끼게 할 수 없다면, 이는 죽은 글이다. 그렇다고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슬픔을 표현한다면 이는 글이 천박해질 뿐이다.

농암의 哀辭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철저히 슬픔에 그 주안점을 두었고, 다양한 문장기법을 통하여 슬픔에 대한 노골적이거나 사실적인 표현이 없으면서도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흐느끼며 슬픔을 주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參考 文獻>

金昌協, 『農巖先生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248-252,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3.
——,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1-162,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1996.

金澤榮 編, 『麗韓十家文抄』.

徐師曾 編, 『文體明辯』.

宋伯玉 編, 『東文集成』.

姚鼐 編, 『古文辭類纂』.

劉勰, 『文心雕龍』.

黃堅 編, 『古文眞寶』.

『論語』.

김상홍, 「進士 朴南壽의 哀祭文學 研究」, 『漢文學論集』 12, 단국한문학회, 1994.

안영길, 「金昌協의 文學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吳錫環, 「農巖의 哀祭類 散文文學 小考」, 『漢文學論集』 15, 근역한문학회, 1997.

——, 「農巖의 哀祭類 散文文學 研究」, 『한국고문이론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 「農巖 金昌協의 散文文學 研究」,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農巖 金昌協의 祭文에 나타난 문장기법 연구」, 『漢文古典研究』 18, 한국한문고전학회, 2009.

Abstract

The sentence technique research which appears in a sad story of Nong-arm.

*/ Oh Sok Hawn**

The sad story does not make a tear and not to be is a writing which grieves and a writing which makes respects the dead person young early from is, maybe there is a talent cannot be used grief to think, maybe there is a virtue does not live long without being able, said that grief thinks.

The work which from here presents with the master piece of Nong-arm about his disciples and the second cousin sibling the writing as is, will be able to guess the fact that Nong-arm puts the heart and soul. He uses a many kinds sentence technique from here and between he does not know naturally to being sad he gets wet and to make hold he is doing letting oneself with the person.

First connected a sentiment and a logic and to build a logic from(由情立理), or the method which builds a nest(寄情于理) an affection in logic used. Used an examination with method of demonstration and proved(借古證今) and or proves the fact to use a fiction the method which used(以虛證實). In order to distinguish the dignity which is mental until features of the inside puts in the same time when draws a surface shape and the technique and uses is sad naturally and to come in flocks is doing.

The function which prose is general is to a utility. Specially, the sad story is the writing which informs in promotion of the person who is dying. Consequently, thing is the keynote the justly sad. The no matter how superior author to be beautiful there is a writing skill which is gorgeous, but

* Visiting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Chungnam national Univ. /
gosan-man@hanmail.net

being sad in contents, this lacks, letting is earnest with the person and the person who is living being sad and if there is not a possibility of doing to make feel, this the gruel is the writing.. But, outspoken and factually being sad, if expresses, this the writing is only will become shallowly.

The sad story of Nong-arm when seeing from like this viewpoint, to being sad thoroughly, put the keynote. The sentence technique which is various leads, is about sad outspoken, or there is not expression which is factual. Also the person who is living and becomes own one is dying and feels sad together, is sad and a possibility of doing there not to make be subject is doing.

【Key words】 Sentiment and logic, being sad, demonstration, animation feeling and expressive technique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일 :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12월 6일